

大陸時代로 轉換하는 韓國經濟

金 泓 汎*

< 目 次 >

- I. 世界經濟秩序의 再編과 韓國의 課題
- II. 大陸時代로 轉換하는 韓國經濟
- III. 大陸時代로 들어가는 韓國經濟의 展望

세계가 냉전시대로부터 전환하면서 世界經濟秩序가 再編되기 시작했다. 이런 정황하에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더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문제는 국내외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이 논문은 地緣경제학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토론하려 한다.

I. 世界經濟秩序의 再編과 韓國의 課題

世界經濟秩序가 再編된다는 것은 세계가 軍事對立으로부터 經濟競爭 특히 技術競爭으로 전환하는 것을 배경으로 각국간의 依存經濟關係를 조절하여 世界經濟를 순조롭게 발전시키자 하는 것이 목적인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에 적응하여 경제발전전략을 새로 재정하는 것이 각국의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재편되는 세계경제질서를 새 세계경제질서라고 할때 지금까지 世界經濟秩序를 既存 世界經濟秩序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존 세계경제질서는 政治上的의 大國霸權主義와 함께 大國經濟支配 특히 미국경제지배가 주도되어 있었다. 二次大戰後 세계경제에서 미국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1948년에 미국의 공업생산액은 資本主義世界 공업생산액의 56.4%로, 영국의 5배가

* 中國 福建社會科學研究院

되고 1947년에 미국의 수출액이 자본주의세계 수출액의 32.5%로 되어 서구라
과 각국의 총액을 초과하였으며 1945년의 황금보유량은 자본주의세계의 59%
를 차지하고 對外投資도 영국을 초과했다. 이런 경제실력을 토대로 미국은 세
界經濟霸權을 세우게 된 것이다. 즉 미국의 經濟擴張을 위한 무역·통화질서
를 건립한 것이다. 이 세계경제질서는 國際通貨基金, 世界銀行과 GATT를
중심으로 한 調節機關을 통하여 각국간의 경제관계를 조절하여 세계경제질서
를 유지해 왔다. 이들 조절기관의 본부가 미국에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이 國際
通貨基金에서 0.7%의 投票權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은행에서도 24%에 가까운
투표권을 장악하였기 때문에 세계경제질서는 미국에 좌우되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경제의 지배하에 기존 세계경제질서는 주요하게 자본주의 세계경제 특
히 선진국경제에 유리한 역할을 하고 미국경제의 대외확장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예를들면 미국달러가 中心通貨로 되어 미국이 世界 '中央銀行' 역할
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므로 사실상 미국經濟의 霸權地位가 건립되었던 것이
다. 이에 따라 미국달러주도하의 환율이 세계무역, 투자등에 대하여 큰 역할
을 하였으며 그로서 선진국 특히 미국이 많은 경제이익을 확보한 것이다. 물
론 개도국도 일정한 경제이익을 가졌지만 資本主義선진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
는 것이다. 이런 不公平性이 기존 세계경제질서의 큰 弱點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존 세계경제질서중에서 한국경제는 선진국 특히 미국과 일본을 주요
대상으로 한 '一邊刀'적 對外經濟關係를 유지하여 왔다. 한국경제가 '漢江奇蹟
이라하는 큰 성과를 내게 된 것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자본, 기술, 시
장을 이용하여 수출주도형경제를 발전시킨 것이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
다. 그러나 國際政治情勢의 변화와 世界經濟의 발전에 의하여 이 기존세계경
제질서는 도전을 받게 되었다. 한편 政治上에서 걸프戰爭과 東구라과動亂 그
리고 소련의 해체로 既存冷戰時代로부터의 탈피가 급속히 진행되어 大國霸權
主義가 약화되어 '多極化時代'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정치, 경제정황하에 대
국지배를 주요한 특징으로 하여 큰 불공평성이 있는 기존 세계경제질서는 변
화중인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가기 곤란하게 되어 국제환경의 변화추세와 다수
국가의 요구에 맞는 새 세계경제질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럼 새 世界經濟秩序란 어떤 것인가. 이것은 각국의 주장에 따라 평등적이
고 호혜적이고 합리적이고 多辯的이고 협조적인 관계를 건립하여 世界經濟의
國際化와 블록化적 發展추세에 적응하는 것이다. 世界經濟의 블록化추세가 나

타나면서부터 地域的經濟關係와 협력이 급속히 발전하여 새 世界經濟秩序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世界經濟의 블록화추세라는 것은 세계경제의 상호의존관계가 더 발전해지는 가운데서 各國 특히 大國들이 經濟力에 새로운 配置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世界經濟가 미국의 독점적 지배로부터 블록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經濟上으로 볼때 첫째로는 미국경제본신의 장기적 정체로 의하여 經濟力이 상대적으로 적어졌으며 그 반면 일본, 서구라파 各國의 경제가 발전하여 그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되어 서방선진국이 ‘三足鼎立’세로 된것. 둘째로는 아시아, 남구라파와 라틴아메리카의 일부국가들이 선진국의 자금과 기술을 이용하여 급속한 경제발전을 가지게 된 NICS가 경제영향을 확대한 것. 셋째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개도국들이 선진국들의 불공평한 경제협력에서 점점 탈피하여 自主的 經濟發展을 도모하여 블록화를 강화하며 地域經濟統合의 共同體를 세운 것. 넷째로는 동구라파와 소련의 해체에 의하여 ‘경호회’가 무너져 사회주의경제가 큰 영향을 받은 것 등이다. 이로서 세계경제가 두면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추세가 나타났다. 하나로는 체제상에서 資本主義經濟의 主導權이 더 크게 되어가고 있으며 둘째로는 북미경제권, 유럽경제권과 아시아태평양경제권이 世界經濟블록화의 핵심이 되어 미국, 유럽, 일본 3개 선진국이 世界經濟發展을 공동으로 주도하게 되었다. 이 두 추세를 핵심으로 各國間의 經濟關係를 정당히 처리하는 것이 새 世界經濟秩序의 근본적 使命이라 할 수 있다.

世界經濟秩序의 이상과 같은 변화는 한국경제에 어느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지금까지 한국경제는 선진국을 주요대상으로 國際協力을 진행하여 왔기 때문에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은 매우 뒤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국가와의 經濟協力は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 世界經濟秩序가 浮上하면서부터 多變化 經濟協력이 필요하게 되어 한국경제는 선진국과의 경제협력을 의존적으로부터 대칭적이고 호혜적으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對外經濟協力の 새 중점을 개도국과 사회주의국가에 이전시킬 필요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와 개도국경제사이에는 큰 보완성이 있을 뿐아니라 한국이 對外指向的經濟發展을 추구하려면 개도국 원료시장과 상품시장을 떠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서관계가 완화되면서 한국경제와 사회주의국가와의 경제협력이 더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한데서 사회주의국가와의 경제협력이 가능성으로부터 현실성

으로 전환하고 있다. 地緣上으로 보아서 개도국이든지 사회주의국가든지 대부분이 大陸經濟에 속한다. 이것이 새 世界經濟秩序下에 한국경제가 大陸時代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II. 大陸時代로 전환하는 한국경제

地緣上으로 보아서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발전경로는 海洋時代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二次大戰後 40년이래 한국경제가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여 발전하여 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大陸型국가이지만 한국으로부터는 태평양을 넘어야 도달하기 때문에 특수한 海洋型국가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전형적인 海洋型 국가이다. 한국경제가 이 두나라를 위주로 한 시장을 대상으로 輸出主導型的 經濟發展을 추구하여 왔다는 것은 한마디로 海洋을 떠나서는 안 되었다. 그래서 한국경제發展의 地緣的 特徵을 설명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발전을 해양시대라고 개괄한다.

이와 반대로 한국경제는 향후 大陸時代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원래 한국은 半島國家이다. 이런 지리위치는 우선 大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特徵이다. 한국과 연결되어 있는 大陸은 '歐亞大陸'으로 세계에서 원큰大陸으로 아시아와 구라과 두개국을 포함하며 그중에는 중국, 인도, 러시아 등 世界大國들이 있다. 역사상으로 보아서 한반도경제는 이 大陸을 腹地로 하여 發展하기 시작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二次大戰後 미국과 소련의 점령으로 남북에 분열되어 한국은 서방경제체제에 가입하여 미국과 일본시장을 주요대상으로 海洋時代로 들어가 큰 經濟腹地인 大陸과 경제연결이 중단되었다. 최근 世界가 冷戰時代로부터 탈피하여 東西關係가 완화되어 한국이 다시 大陸腹地를 이용하여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큰 기회를 얻었다. 한국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大陸時代로 전환하는 것이 새 세계질서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세계경제가 블록화 방향으로 발전하는 가운데서 아시아태평양경제권에 속하는 중국, 러시아 극동지역, 인도 등 大陸型국가들을 주요대상으로 경제를 發展시키기위해 한국은 경제발전전략의 이념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국제화와 개발된 지역주의를 도입하여 경제를 새 발전단계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화라는 이념은 한국경제가 제개각국의 국제화추세에

적응하여 對外指向的 經濟發展을 전지하여 전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상호의존속에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방된 지역주의라는 것은 세계경제의 블록화에 적응하여 일정한 지역과의 經濟協力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국제화와 개발된 지역국이라는 이념으로서만 전면적이고 지역적인 대외경제협력력을 지도하여 한국경제의 향후발전이 새 세계경제질서를 세우는 중에서 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경제가 대륙시대로 전환하는 것은 세계가 냉전시대로부터 냉전후시대로 전화하면서 동서관계가 완화되며 동시에 새 세계경제질서가 부상한다는 국내의 환경변화의 배경하에 경제적필연성과 객관적 수요가 있는 것이다.

첫째로 한국경제 발전이 시장규모를 크게 확대시킨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한국경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시장을 주요 대상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세계적 무역보호주의와 한미 통상마찰 그리고 개도국의 경쟁등에 의하여 한국의 선진국 시장 점유율 특히 미국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그 반면 '歐亞大陸'에는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못한 큰 시장이 한국경제를 환영하고 있다. 대외지향적 경제는 국제시장의 규모와 수준 그리고 적합성이 큰 발전요인으로 된다. '歐亞大陸'시장을 분석해 볼 때 한국경제에 대하여 여러가지 우위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이 시장은 규모가 크다. 중국 러시아 인도와 구라파를 합한 이 '歐亞大陸'시장은 20여억 인구로 구성되며 미국시장의 10배, 일본시장의 20배를 넘는다. 중국 인도 등 개도국들이 있어 경제수준은 미국과 일본보다는 낮지만 경제규모는 그들보다 더 큰 것이다. GNP는 8만여억 달러로서 미국의 5만여억 달러와 일본의 3만여억달러를 각각 초과할 것이다. 시장규모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수입액은 1만5천여억 달러로서 미국수입액과 일본수입액의 두배나 된다. 둘째로 이 시장은 다양성시장이다. 이상과 같은 상품시장일 뿐 아니라 역시 큰 자본시장과 기술시장이다.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동구라파와 독립국연합은 대량적 자금이 필요하여 매년 200~300억달러가 소요되며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을 실시하여 급속한 경제발전을 보이는 중국도 과거 10여년간에 800억달러의 외국 자본을 도입하였고 향후 매년수요가 100억달러를 넘을 것이다. 인도 등 개도국도 그 경제발전에 대량적 자금수요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시장은 세계에서 제일 큰 자본시장의 하나로 된다. 기술개발수준이 낮은 이 시장은 기술이전의 수요가 크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역시 세계에서 제일 큰 기술시장의 하나이다. 셋째로 이

시장은 다국적시장이다. ‘歐亞大陸’시장은 여러국면으로 구성되었다. 거리적으로 三國市場으로 나눌 수 있다. 第一國市場은 지금 떠오르는 동북아경제권의 대륙시장이다. 이시장은 북한, 중국 동북부와 러시아 극동지구로 구성된 시장으로 인구1억2천만, GNP 약 1만억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으로 한국에 제일 가까운 시장이다. 第二國市場은 중국, 몽골, 러시아 중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시장으로 인구 15여억 GNP 2만여억달러로 구성되어 있다. 第三國市場으로 구라파와 인도 등 남아시아 대륙으로 구성된 시장이다. 인구가 10여억 GNP 4만여억달러가 그 기반이 된다. 경제수준으로도 삼국시장으로 되는데 第一國市場이 1人當 GNP 500달러 이하인 중국 인도 등 개도국 시장이다. 第二國市場으로 1人當 GNP 5천 달러되는 러시아와 동구라파 시장이며 第三國市場은 1人當 GNP가 1만 달러되는 유럽시장이다. 이상과 같이 ‘歐亞大陸’시장은 향후 한국상품 자본과 기술의 비할 수 없는 큰 흡수장으로 되며 거리 단축으로 경영코스트가 절약되며 한국경제발전에 획기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로 수직적 국제분업위주로 상호 보완관계가 크다. 한국과 ‘歐亞大陸’의 국제분업을 볼 때 수평적분업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직적분업이다. 한국과 ‘歐亞大陸’ 각국의 생산요소 보존상태를 보면 매우 다양하다. 한국과 유럽선진국과의 생산요소 보존상태는 수평적 국제분업으로 전환하는 중인 산업내 새 수직분업형태로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유럽선진국과 같이 공업품생산을 하지만 한국은 기술수준이 낮은 공업품을 생산하며 유럽선진국은 기술수준이 높은 공업품을 생산한다. 한국이 노동집약적 공업품을 위주로 생산하는 것이 그 구체적 표현이다. 한국과 기타 ‘歐亞大陸’ 국가와의 국제 분업은 수직적 국제분업이 주도다. 이런 국제분업형태는 한국과 ‘歐亞大陸’ 각국간에 상호보완관계, 공업화정책, 기술개발형태 등에 객관적 경제 협력요인이 되는 것이다.

생산요소보존상태의 다양화에서 생기는 한국과 ‘歐亞大陸’ 각국간의 상호보완관계는 한국의 자본, 기술, 경영노하우등이 풍부하거나 여유있고 자원과 노동력이 부족하다. 반면 중국, 러시아, 인도 등 국가는 노동력과 자원이 풍부하거나 여유있으나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 기술과 경영노하우가 부족하다. 이로써 한국과 ‘歐亞大陸’ 각국간에 한국이 자본기술과 경영 노하우등 생산요소를 가지고 다른나라들과 부족되는 노동력과 자원 등 생산요소를 교환하며 또 일부 선진국으로부터 다 발전된 기술을 도입하여 한국에 유리한 분업관계를 세울 수 있다. 자원이 부족되는 한국경제는 이런 보완관계와 분업에서 큰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수직적 국제분업의 주도적형태와 관련되는 경제현상으로 한국과 ‘歐亞大陸’ 각국간에 공업화단계의 차이와 공업화정책의 다양성으로 상호 경제협력을 성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歐亞大陸’ 각국의 공업발전 바탕을 볼 때 두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대내지향적경제주도 형태로 이것은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대륙국가들이 국내시장을 위주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한편 일부 대외지향적 경제로 발전시키는 바탕이다. 또 하나로는 대외지향적 경제주체의 수출주도형 공업화로 다른 나라의 대외지향적 경제주도의 수입대체형 공업화와 상호보완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협력할 수 있다. 공업화 정책에서 볼 때 한국은 수출주도형정책으로부터 산업구조 고도화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중국, 러시아, 인도 등 ‘歐亞大陸’ 국가들은 자원가공 도향정책과 일차·이차 산업상품 수출주도정책을 실시하거나 수입대체주도형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산업의 해외이전을 통하여 또 ‘歐亞大陸’ 기타국가 특히 중국, 러시아, 인도 등 국가와 협력할 수 있다. 이것으로 한국경제는 산업의 저급단계로 부터 고급단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국제분업이 그 正수평형분업으로 발전하는 데 따라 ‘歐亞大陸’ 각국의 산업내 분업이 산업기술수준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산업기술은 대부분이 중간기술에 속한다. 즉 유럽선진국에 비하면 한국기술은 뒤떨어져 있다. 그러나 ‘歐亞大陸’의 개도국들에 비하면 그 기술수준이 높은 것이다. 때문에 한국과 유럽선진국간의 산업내 분업은 그 正수평형분업내의 수직적분업으로 유럽선진국이 기술집약적 공업을 발전시키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현시에 한국은 노동집약적공업주도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경우이다. 그러나 ‘歐亞大陸’ 개도국들이 자원가공공업이나 노동집약형 공업을 주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비하면 또 선진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산업내 수직분업이라는 새 분업형태를 이용하여 한국은 유럽선진국과의 후진적 산업내 수직분업을 세우는 동시에 ‘歐亞大陸’ 개도국들과 선진적 산업내 수직분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한국은 중간기술, 중간산업 이전을 추진시키는 동시에 자신의 산업고도화도 실현시킬 수 있다.

셋째로 한국이 남북경제협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새 세계경제 질서를 세우는 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서 남북경제 격차를 축소시키

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경제는 40여년 발전을 걸쳐 이미 중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과거 자기의 경제발전에 전력을 썼기 때문에 세계에 더욱이 남방국가에 지원이 없었다면 현재 일정한 경제실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 새 세계경제질서에 적응하여 남북경제격차의 축소에 적극적인 공헌이 있어야 할 것이다. ‘歐亞大陸’ 국가에는 개도국 단계에 있는 나라들이 많고 또 사회주의 국가도 있다. 한국이 이런 나라들과 같은 대륙에 있는 중요한 지위를 이용하여 ‘歐亞大陸’ 국가와 경제협력을 강화할 때 우선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이로써 한국도 호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한다는 것은 여러면에서 할 수 있다. 개도국들과 상호간 시장을 확대하여 개도국의 일차 상품과 초기가공제품의 수출시장을 제공하여 개도국 공업 발전에 필요한 자본재와 부품수출을 확대하는 것이며, 또 대외투자를 통하여 개도국의 대량적 자금수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이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전환하면서 대외투자가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歐亞大陸’ 개도국 대투자가 크게 늘어가야 할 것이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들어간다면 개도국에 대한 경제원조는 홀시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경제원조를 받은 일은 있지만 다른 나라에 경제원조를 한 것은 매우 적거나 또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경제원조국 행렬에도 들어서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한국은 대외무역, 대외투자, 대외기술이전과 대외경제원조를 통하여 ‘歐亞大陸’ 개도국경제발전을 위한 새 世界經濟秩序의 건립과 유지 그리고 남북경제격차의 축소와 동서경제협력에 공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으로 한국경제의 세계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III. 大陸時代로 들어가는 한국경제의 전망

한국경제가 이 世紀末에 선진국경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한국경제전략의 중요한 목표일 것이다. 대륙시대로 전환한다는 것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새 世界經濟秩序에 적응하여 大陸時代로 전환한다는 것은 과거의 ‘一邊倒’의 대외경제관계를 규정하여 상대적으로 균형한 대외경제관계를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전후 냉전시대의 조건하에 한국경제는 미국을 위주로 한 서방선진국의존하에 발전하여 왔다. 이로써 한국의 수출시장, 자본과 기술도입원이 태평양지역에 집

중하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의 환경하에 필연적 현상이며 한국경제에 큰 이익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世界經濟의 多變化 추세가 강해지므로써 심각한 모순도 초래하게 되었다. 직접적 모순으로 주요선진국가 특히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심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북미시장이 축소되고 제한을 많이 받게 된 것과 국내시장을 개방하라는 큰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다 이런 무역마찰에서 생긴 것이다. 간접적 모순으로 에너지, 원료, 부품들이 많이 선진국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경제불황에 빠졌을 때 한국경제가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70년대 오일쇼크가 한국경제에 일으킨 영향중에 이 간접적 영향이 매우 커서 한국경제도 불황에 빠진 것만은 사실이다. 한국이 대륙시대로 전환한다면 이런 기존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수출시장, 새로운 에너지, 원료원, 새로운 투자시장을 개발할 수 있게 되며 한국경제의 향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 해양시대의 수출시장, 에너지, 원료원 그리고 투자시장을 확보하는 동시에 '歐亞大陸'을 향하여 새로운 수출시장, 새로운 에너지, 원료원, 새로운 투자시장을 확대하여야만 개방된 한국경제가 개방된 세계에서 동서남북의 선진국 그리고 개도국, 또 자본주의 국가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과 전면적 경제 협력을 하여 균형적인 개방경제를 發展시킬 수 있을 것이며 새 世界經濟秩序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가 선진국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大陸時代로 전환하는 동시에 기술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학과 기술이 急速히 發展하는 데 따라 경제발전에서 기술의 역할이 점점 크게 되고 있다. 사회 생산력의 발전, 국제분업의 전개, 경제의 국제경쟁력등은 모두 기술주도하에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기술이 역사의 動因이 된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한국경제를 놓고 볼 때 이렇게 기술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경제가 本世紀末에 선진국 경제로 되려면 우선 기술수준을 높여야 한다. 지금 뒤떨어진 기술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한국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평균 10년 정도 뒤떨어져 왔고 특히 기본설계, 소재, 시스템, 소프트웨어등 핵심, 첨단기술적 기초과학분야에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고 한다. 이 결과로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이 저락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볼 때 일본이 1975년의 16.6%로 부터 1990년의 15.2%로 하락한 데 비해 한국은 1975

년의 9.2%로부터 1990년의 14.4%로 상승했다. 이것은 한국경제의 기술수준이 저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다른 한편 기술수준의 저락으로 인하여 선진국과의 경제격차가 커지고 있다. 일본 노무라연구소의 예측에 의하면 1989년 한국의 經濟發展정도가 日本의 1966년 수준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日本의 1973년 수준에 머물러 그 격차가 23년에서 27년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이상으로 보아서 기술수준을 높여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한국경제발전의 열쇠가 된다는 것이 분명한 추세이다. 이는 한국기술계와 경제계 인사들과 정부가 이에 공동한 인식을 가지고 대책까지 내놓고 있다. 한국과기처가 90년대말까지 한국의 과학기술을 선진7개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목표를 세우고 한국정부는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만이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인정한 데서 1995년까지의 기술개발계획을 세워 신소재, 전자, 반도체 등 20개 분야에 1백53개기술을 중점 개발하기로 한 것 등이 이 대책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대책을 실현시키자면 아직도 기술개발투자, 인재육성, 기술정책 등의 방면에서 많은 구체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계획보다 실제적 행동이 더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한국경제가 선진국경제로 전환하는 중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한국경제가 大陸時代로 전환한다든지 새 世界經濟秩序의 전개에 큰 힘을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의 향후 發展은 사회進歩를 추진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선진국경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이와 맞는 사회생활의 안정과 고도화가 필요하다. 전후 40여년간 한국은 경제우선 방침으로 ‘漢江奇蹟’이라는 성과를 얻어 一人當 GNP가 5000달러를 초과하고 몇 년후에는 10,000달러로 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대립과 군사충돌 등을 배경으로 군인정치를 특징으로 하는 정치제도와 재벌주도적 경제에 의한 소득분배 不公正性으로 경제발전과 사회생활이 잘 맞지 않는 점이 적지않다. 한국 갤럽조사연구소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한국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만족도는 美·日 등 18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실에 대한 행복감에 있어서는 행복하다는 것과 약간 행복하다는 대답이 65%로, 18개국 평균 83%에 비하면 많이 뒤떨어져 역시 최하위로 되어 있다. 특히 사회제도가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빠른 늦은 사회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85%나 되어 18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것은 한국경제의 향후 발전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발전과 사회진보가 결합되어야 하며 경제발전의 최종목적은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두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는 물질조건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지만 또 생활수준을 높이므로 경제를 더 발전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경제는 一人當 GNP가 10,000달러로 되면서 국민의 복지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한국경제가 선진국단계로 들어가며, 세계가 冷戰後時代로 들어가면서 국민들의 복지요구가 높아지며 가치관도 변하게 될 것이 필연적 추세이다. 이런 새 추세에 맞추기 위해 한국정부는 경제발전을 통하여 소득분배 公平化와 복지수준 향상 그리고 사회안전과 질서유지 등에 유리한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